2054 未來佛教



그림 · 김상규

2054년 한국불교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속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술왕사(述往事), 지래자(知來者)’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을 기술하여 다가올 일을 안다’는 것인데, 역사를 앎으로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의 창간호에는 ‘2020년 가상현장-꽁트 타임머신 보고서’라는 기획특집이 실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꽁트 형식은 아니고, △종교·사회분야 △사찰경영·종무행정 △출가·승가교육 △전법포교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AI, 증강현실, 가상현실, 딥페이크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칠 영향이 불교에도 그대로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진리의 위상이 추락하는 시대에 나타날 탈실재화·인간화·진실화는 종교의 의미를 묻게 될 것입니다.

탈종교화로 인한 종교인구 및 출가 수행자 감소는 사찰 및 교단의 종무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IT시스템 구축 및 사부대중 참여 운영 체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전망했습니다.

승가교육도 온라인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법(法)의 깊이를 갈구하는 수행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수행과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30년 뒤 종교인구의 주류 세대는 현재의 2030세대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전법포교가 중요합니다. 미래불교의 성패는 현재의 청년포교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신행문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현실 사찰에서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고승의 법문을 듣거나 각종 경전이 디지털화돼 누구나 쉽게 검색해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30년 뒤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서산 대사의 선시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